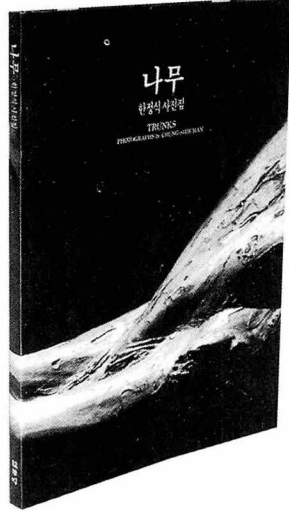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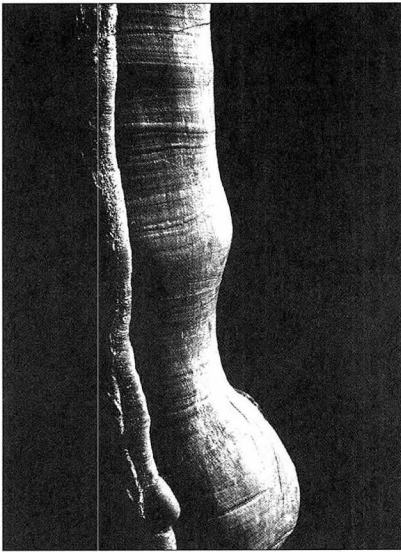


빛과 나무, 에로티시즘의 미학

한정식 《나무》



사진집 《나무》 중.

빛의 난장 속으로 단 하나의 사물을 끌어 들이기 위해 십오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세월과 어우러지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피사체와 사랑에 빠진 사진작가. 사진집 《나무》(1990, 열화당)는 렌즈 속에서 피사체와 격렬한 사랑을 나누는 작가의 진한 숨결이 담겨 있다.

단순히 형태에 끌려 나무 찍기를 시작한 작가는 매마른 나무에게서 조금씩 생명력을 느낀다. 우람한 고목은 사람의 몸통 같기도 하고 꼬불꼬불 꼬인 가지와 이상하게 갈라진 틈은 선정적으로 보인다. 어느덧 살아 있는 생명체로 다가온 나무에게서 생명의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에로티시즘의 본질을 느낀다.

그렇게 시작한 나무의 에로티시즘 표출

작업은 순간의 본능적 충동을 넘어 기나긴 기다림으로 이끌었다. 매마른 나무 앞에 앉아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문득 빛의 기운이 뻗어오는 것을 느낀다. 불현듯이 일어나 나무와 속삭임을 나눈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나무는 또다른 생명체로 꿈틀거리며 현란한 표정을 드러낸다. 욕망의 미약을 마신 여인처럼 꿈틀대는 나무의 유혹에 빠져 정신없이 셔터를 눌러대는 동안 카타르시스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다.

사진집 속에는 고뇌하는 그리스 철학자의 얼굴이, 님을 기다리는 듯이 목을 길게 늘이고 있는 여인이, 생명의 근원을 잉태한 듯한 음부의 질펀한 모습이 있다. 삶을 초월한 듯한 노인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젊은 여인의 미끈한 육체가 있다. 역센 근육질로

얽힌 뿌리와 뿌리는 공존의 본능으로 다가온다. 그 모든 사진이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빛과 그림자, 대지와 나무, 나무와 인간이 나누는 생명의 미학이 소유주를 이루며 한테 어우러져 있다.

하나의 사물에 생명의 미학을 부여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온 작가는 사진집 《발》(1992, 사진예술사)을 펴냈다. 저서로 《사진예술개론》(열화당), 《사진의 변모》(눈빛) 등을 냈고, 《예술로의 사진》(해담)을 번역해 내기도 했다. 개인 사진전도 다섯번이나 열었던 그는 현재 중앙대 사진학과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 오완진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230호 / 1998년 2월 20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증한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마정미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운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중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IMF시대의 저렴하고 실속있는 출판광고!
빠르고 알찬 신간종합정보지 — 《출판저널》의
광고지략으로 출판계 깊은 불황의 주름살을
조금이나마 펴 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광고문의 전화: 732-1433 팩스: 722-1174